

“不二사상, 北 인권문제 푸는 열쇠”

노귀남 박사 ‘인간안보의 불교사상적 해석’ 통해 주장 실천불교승가회·불교포럼, 북한인권법 주제 포럼 개최

불교인권철학의 핵심인 불(不二)사상은 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북한 인권문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도 겹쳐있고, 인권문제 인식의 편협성도 개입돼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난관 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분분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9월 20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노귀남 박사

이날 포럼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귀남 박사는 논문 ‘인간안보의 불교사상적 해석-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을 찾는 불교인권철학의 접근’을 통해 불(不二)사상과 만해 한용운의 생명·자유·평화사상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했다.

즉 인권문제를 ‘나에서부터’로 규정하고 그 인권을 실현해야 할 주제 또한 ‘나’로 간주함으로써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북한인권문제에 대입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

‘일원론’이 불교인권철학의 핵심

노 박사는 ‘만해의 <불교인문론>과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에 나타난 ‘신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자유는 만물의 생명,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 불교인권철학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노 박사는 ‘불교인권철학의 핵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은 본질과 현실(‘본체’와 ‘주체’)의 관계 속에 현실의 실상이 있다고 보고 이때 현실의 변화는 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 예측된다’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근본 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점이 바로 존재-인식-실현을 동시에 보는 불(不二)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천불교승가회·불교포럼은 9월 20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왼쪽부터 서울대 변화학 교수, 한양대 김광용 교수, 국제문제연구소 조성열 박사, 건국대 성태용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귀남 박사, 불교문화연구원 조준호 연구교수.

연구법칙 입각해 ‘충돌’ 풀어야

노 박사는 “불(不二)사상을 핵심으로 한 불교인권철학은 싸움 대상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주의’를 포괄하며 존재를 인식하고 실천의 문제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포괄적 생명존중’로 실천적 주제에서 나오는 실천적 인권이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식 인권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나와 남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며 “서로 다른 자유와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모순을 불교에서 삶의 현실과 인권을 바라보는 ‘연구법칙’으로 풀어야하고 문제 해결점은 현실의 당면 과제에서 출발해 인권 당사자를 위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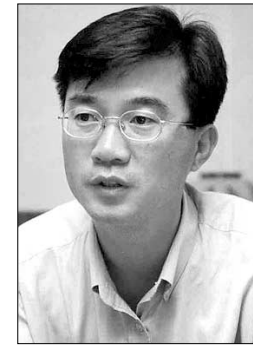
노 박사는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인권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적 인권에 대해 △사심(邪心)이 없을 것 △증오심을 버릴 것 △통일운동의 일상화 △통일운동의 대중화 △평화주의 등 ‘통일실천운동 5개’를 제시하며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권운동을 제시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관은 환경권, 평화권과 같은 집단의 권리로 주장하는 소위 ‘제3세대 인권’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권 개념에 ‘인간 안보(자유, 보건, 식량, 처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생명권)’를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는 것.

현대에 녹아있는 ‘지눌’은?

김경집 교수, 효봉·구산 스님에 끼친 영향 등 조영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이 근·현대불교에...’ 학술발표회

“지눌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사회적 실천은 당대는 물론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법맥을 지켜올 수 있었던 근간이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6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보조사상이 근·현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6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보조사상이 근·현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세계에 머무르지만 진성을 잃게 되면 그가 바로 중생이요 그곳이 바로 사바세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수는 <석사자>와 <구산선종>의 내용 중 ‘깨달음은 참나요, 수행함은 막간에 있는 것이니, 수도자는 정과 해를 뒤을을 한시도 게으리 말지니라’를 통해 구산은 지눌의 돈오점수와 정혜장수의 수행관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현대 불교의 보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한암·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현대 불교의 사상적 기반 등 △근·현대 불교의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사상의 장상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상을 수수한 한국식 장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믿음-무엇을 어떻게?

정도학회, 29일 세미나

한국정도학회(회장 보광)는 9월 29일 대전 자광사에서 제9회 한국정도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승불교의 믿음의 문제(信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종교에 있어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고 대승불교의 여러 분야 인 정도와 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대승불교의 신관’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의 ‘신에서의 믿음의 문제’ 등을 비롯해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에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금강대 권탄준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02)581-3138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20일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사진)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연흔(隕痕·물결 자국), 공룡발자국 화석 그리고 퇴적 층리(層理) 등이 계승사 경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흔이 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이르고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그 밖에도 이 곳에는 퇴적구조 층리와 용각류·수각류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병철 기자



(불자정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 (02) 737-0696
- e-mail: jab1522@empal.com

사찰터 (금)안내

- 위치: 화순에서 20분거리
- 건평: 1125평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 아미타삼존불, 각단행화 무료보시
- 도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4천만원
-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 010-5255-9288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광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 입주 가능, 철학관도 가능
- 02) 433-1106
- 010-7440-3347

사찰 (금)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압량면
- 대지: 약 310평
- 건물: 요사채 25평, 법당 25평
- 특징: 정면이 못이 있어 경관이 수려
- 가액: 보증금 2억 8천만원
- 답사 후 가액 절충 가능
- 053)802-0577
- 011-9186-0724

토굴이나별장안내

-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 건물: 목재건물 2동
- 011-838-6568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500여평 사용 (무상임대)
- 건물: 법당 1동 20평, 방 3개
- 특징: 약 70여년 된 (임야: 4700여평 매입 수용가능하며 실버타운, 납골당 적지라 생각됨)
- 가액: 9500만원(절충가능)
- 011-288-6668

사찰및지편선시설안내

- 위치: 경주보문단지에서 감포쪽 황룡계곡
- 대지 143평, 전답 300평 총 443평
- 현재 건물 5동 있음
- 산세 아름답고 앞에 맑은물 계곡이 흐르고 있음
- 054)771-2345
- 010-7530-8585

포교당 안내

- 위치: 제주 시내 대단지 아파트 부근 대로변 옆
- 법당: 20평
- 시설완비
- 가격 저렴
- 010-2303-9658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5분거리
- 부지: 1천평 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6평
- 요사채 75평, 심야보일러 50평
- 가액: 집기포함 2억 8천5백
- 016-536-8774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진구 가야 2동
- 건물: 일반주택 (1, 2층)
- 종대지 50평, 건평 30평
- 주차가능, 지하철 역세권 시장인접, 유동인구 많음
- 가액: 1억 5천만원
- 054)654-8450
- 011-880-7659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 부천시
- 평수: 60평 (2,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모든 집기 일체
- 032) 662-1774

사찰터 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 대지 666평
- 건물: 구가옥 35평
- 평당 40만원
- 011-299-4465

무학스님의 빛나는 법문

국판 | 144쪽 | 전 5권 세트 - 각권 5천원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의 잔잔한 사자후
- 우리나라 최대 도심사찰의 성장 노하우가 들어있음.
-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 참선의 바른 법 제시

조계종 영남불교대학·대관음사 053) 474 - 8228
[부속출판사 도서출판 죽은인연 053) 475 - 3707]